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

8월 24일까지 전 국민 대상 3개 부문 진행

전주시 주최, '2023 전주독서대전'이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축제로 준비된다. 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023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올해의 책 독후회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질문결의의 우리, 독서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 올해의 책 독후회'와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부문이 신설돼 참여 대상이 어린이까지 확대됐다.

먼저 '전주 올해의 책 독후회'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글·그림) 부문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주시 도서관산업과(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전주시립도서관 북삼 3층)로 방방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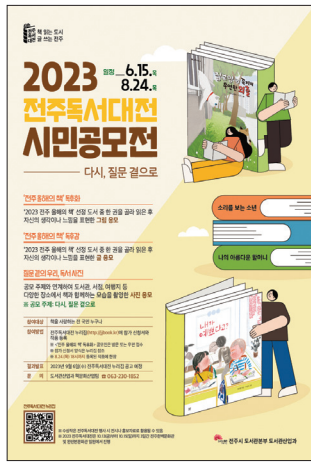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은 초등부(4~6학년)와 중·고등부, 성인

부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4권 중 한 권에 대한 독후감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질문결의의 우리, 독서 사진' 공모전은 올해 전주독서대전 주제인 '다시, 질문결의로'와 연계해 도서관과 서점, 여행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책과 함께하는 모습을 촬영 후 고해상도 사진(2400x1600 픽셀 이상)을 1인당 최대 2점 이내로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부문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뒤, 오는 9월 6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과 더불어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2023 전주독서대전' 기간 동안 전시 및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2023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및 완관본문화관 일원에서 '다시, 질문결의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0-1852)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시민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길 바란다"면서 "시민공모전과 함께 2023 전주독서대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안전사고 대비 주소정보시설 확충

위치 파악 어려운 곳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식별 구조 용이

전주시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1,400만원을 투입해 소공원과 택시승강장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에 사물주소판 185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까지 1,300만 원을 투입해 모악산 등 5개소 주요 등산지 진입로 지주 등에 기초번호판 217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까지 전주시 주소정보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주요 등산지 진입로와 소공원, 택시승강장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은 도로변 지주와 가로등·전신주, 소공원, 택시승강장·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해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이다.

대형 건물 등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초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을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를 바로 식별할 수 있어 119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구조하는 데 용이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발로 뛰는 현장행정

학산숲속시립도서관 찾아 도서관 운영 현황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4일 학산숲속시립도서관을 찾아 현장활동을 펼쳤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길 의원)가 14일 학산숲속시립도서관을 찾아 현장활동을 펼쳤다.

정성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활동에서 도서관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당부했다. 학산숲속시립도서관은 지난 2021년 평화동 학산에 개관한 후, 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책 읽기 좋은 환경으로 시민의 호평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전주시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들이 시민에게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어줘 기쁜 마음"이라며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 환경 피크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등학생 자녀 동반 가족 50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0일, 건지산 벵이숲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 나와 지구를 구하라, 우리가족 환경 피크닉'을 실시했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산책'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위탁법인인 (사)전주YWCA 중점사업인 기후위기시대 청소년환경운동에 맞춰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심리적 대응과 연계한 가족 활동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상호이해를 돕고 상호공감을 통해 가족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산책'에는 전주시청 환경단체인 프리데코(PRIDECO)의 환경 전문활동가 5명이 함께 참여해 △환경에 대한 강의 △생태 OX 퀴즈 △계피 모기 기피제 만들기 △마음산책 플로깅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건지산 벵이숲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 나와 지구를 구하라, 우리가족 환경 피크닉'을 실시했다.

△환경교인을 통한 비건샌드위치 교환 등을 진행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

래하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청소년과 가족들이 공부하고,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여행 콘텐츠 발굴 '전주 여행학교'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숨어 있는 여행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눈으로 전주의 숨어 있는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는 '2023 전주 여행학교'의 1~4기 참여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내가 그리는 전주 여행의 새 그림'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주 여행학교는 전주시민이 전주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스스로 '나만의 전주 여행'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전주 여행학교에는 여행을 좋아하고 전주 관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전주시민 또는 전주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각 기수별로 40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전주시민 대상 공개특강과 전주 현장 투어, 벤치마킹, 팀 미션

투어, 여행 콘텐츠 기획 워크숍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특히 현장 투어는 △순례투어 △명소문화 축제투어 △예술투어 △혁신투어 △웰드컵투어 △야간투어 △혁신투어 △벤치마킹(광주, 공주, 담양, 청주) 등으로 기수별 특화로 운영된다. 또한 올해 2기 전주 여행학교의 경우 청년 특화 기수로 운영되며, 3기는 평일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야간반으로 구성됐다.

전주 여행학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네이버폼(naver.me/5bderq2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페니야츠 컴퍼니(063-222-3279)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정책과장은 "시민 중심의 전주 관광 브랜드 확장과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행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전주 관광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주 여행학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